

광주·전남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빨간불'

올해 '월드클래스 300' 광주 남도급형 단 1곳 선정 경기 12곳, 대구·경북 8곳...경제규모 비슷해도 뒤쳐져 6년간 231곳중 지역기업 4곳 그쳐...지자체 지원 시급

최근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에 광주에서 단 1곳 밖에 지정되지 못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원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광주전남중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에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남도급형(주)이 선정됐다. 이로써 광주·전남에서는 2012년 선정된 (주)오이솔루션을 포함해 전남 케이씨(주)와 (주)파루에 이어 4곳이 지정됐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국내 중견·중소기업 300개를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은 성장 로드맵을 기술, 해외마케팅, 경영 분야별로 보여주는 성장전략서를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기업으로 중견·중소기업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올해 경기도가 가장 많은 12개의 월드클래스 기업을 배출했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10개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지역은 8개(대구 5곳, 경북 3곳)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구·경북이 총 50개 중 8곳이 선정돼 16%를 차지했지만 광주·전남은 단 1곳만 선정돼 2%에 불과했다.

누적된 수치로 봐도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취약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2011년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에 지금까지 총 231개 기업이 선정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은 39개가 선정된 반면 광주·전남은 4곳으로 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사업 대상이 매출액 400억 이상 1조원 이하, 수출비율 20% 이상, R&D(연구개발) 집약도 3년 평균 2% 이상 또는 매출증가율 5년 평균 15%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분야 평가와 현장 실사, 종합 평가 등 심층 평가를 거치는 등 선정절차가 까다롭지만 지역 경제 규모에 비해 선정된 기업 수가 적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려 해도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물론 지역 경제계에서도 경제지원단체들이 선택과 집중 전

략으로 월드클래스 기업에 근접해 있는 업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한개의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면 협력업체의 이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미래전략과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최대 5년간 75억원의 전용 연구개발자금이 지원되고,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코트라와 해외 마케팅 패키지 지원이 5년간 이뤄진다. 또 6개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우대, 12개 전문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조세·물류·해외수주 등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26.85 (+1.61)
- ↓ 금리 (국고채 3년) 1.24% (-0.01)
- ↑ 코스닥 648.12 (+0.96)
- ↑ 환율 (USD) 1182.30원 (+2.40)

진정세 찾은 금융시장

주가, 1.63P 오른 1926.85...환율, 2.4원 상승 1182.3원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양대 증권시장은 27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의 충격과 맞물려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브렉시트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위험)와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이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시가 완전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1포인트(0.08%) 오른 1,926.85로, 코스닥은 0.96포인트(0.15%) 상승한 648.12로 마감했다.

영국 국민투표 투표의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충격과 기대가 교차된 지난 24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09%, 4.76% 하락하며 '패닉 장세'를 연출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 불안감이 생각보다 빠르게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이날의 구원 투수는 금융투자(증권사 자기매매)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이었다.

프로그램 매매를 활용해 차익을 노린 금융투자 창구에서 2587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저가 매수에 뛰어든 투신권에서는 141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연기금(232억원)까지 매수에 가담하면서 기관이 전체적으로 4000억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도 이날 반등을 이끈 요인이다. 이번 주 예정된 EU 정상회의, 유럽의회 입시회의 등을 통해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감이 시장에선 커지고 있

다. 정부가 브렉시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광역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이날 증권사 시장단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여는 등 금융투자업계 차원에서 시장 부양 의지를 보여준 것이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애초 예상과 달리 이날 한국 주식 순매수에 나선 영국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가 EU에서의 추가 탈퇴 등 불확실한 변수들이 적지 않아 증시의 불안 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장세로 전환된 데다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브렉시트 영향을 받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2.3원으로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원 올랐다. 무려 29.9일이나 금값이 상승한 데다가 EU에서의 추가 탈퇴 등 불확실한 변수들이 적지 않아 증시의 불안 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정도에 큰 변동성을 보였다.

국고채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여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채권 금리의 최저치 경신이 이어졌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bp(1bp=0.01%포인트) 하락한 연 1.289%를 나타냈다. 3년물은 지난 24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찬성 여파로 연 1.249%를 기록한 이래 하루 만에 사상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10년물도 1.6bp 내린 연 1.484%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지역 중소 수출기업 중국 진출 돕습니다

무역협, 특화 전시회 참가 업체 모집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중국진출 특화 전시회 참가 업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지역 업체들이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선정된 업체에는 중국 광저우출입상품교역회(이하 쉐먼페어)와 중국 성도(사천성)한국상품전시상담회(이하 성도상품전)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쉐먼페어(10월31일~11월4일)는 53년 역사의 소비재 전시회로, 전시회장이 위치한 광저우는 중국 3번째로 GDP가 높은 지역(2011년 기준)으로 방문객이 매년 10만명을 넘고 있어 소비재 생산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성도상품전은 리빙디자인, 웨딩&뷰티, 패션디테일, 베이비&키즈, 프리미엄음료, 커피&베이커리, 리테일&프랜차이즈 분야의 생활소비재가 대상품목이며 350여개 한국기업이 참가하여 전시회와 1대1 바이어 매칭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업체로 참가가 확정되면 광주시 후원을 받아 부스 임대료(80%), 편도운송비, 통역료, 편도 항공료 등 행사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9403.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우리 고장 열대과일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에서 하미과를 선보였다. 하미과는 메론과 같은 열대과일로 해외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고 있으며 곡성과 당양에서 재배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제공>

광주 미분양 아파트 3개월 연속 증가

전달보다 237호 늘어 1049세대...전남은 1844호로 줄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미분양이 수도권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5월 광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 지역 미분양주택은 1049호로 전달 812가구 보다 237호(29.2%) 증가했다. 지난 3월 기준 764호에서 4·5월 세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지역은 지

난 3월 기준 1380호였던 것이 4월 2017가구로 늘었으나 5월들어 다시 1844호로 173가구(8.6%) 줄었다.

이에따라 지역 주택시장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를 중심으로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건설사의 재무건전성과 부

동산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분양량미에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수요자들은 분양물량 급증에 따른 과잉효과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주택이 2만 887가구로 전달보다 1458가구(6.5%) 감소한 가운데 지방 미분양주택은 3098가구로 10% 가까이 늘었다.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 누리

(http://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담양 백동2 국민임대 130세대 추가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7일 담양 백동2 국민임대주택 잔여물량 130가구에 대해 입주자의 자격을 완화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자산보유 기준은 부당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번 백동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소득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 부당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7만

원 이하 등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모집에는 전용면적 6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담양백동2 현장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인터넷 청약도 병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2일, 계약체결은 9월7~8일이다. 문의 062-360-3051.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ECO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적용효율 중대!! |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핑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음식점,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선서버룸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발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지점: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오선동) ☎ 062-952-6633 | 인사관리: 전북 익산시 혁암로1길 4(용정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shh@yhb.co.kr / ecob400@hanmail.net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KwangShin Apartment

광주 광동역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062-511-1141

시행 1주에이치엔 시공 (주)광신종합건설